

『대한매일신보』 소재 배설(裵說, Ernest Thomas Bethell) 추모시가 연구*

김아연**

<차 례>

1. 머리말
2. 배설의 절명과 배설 추모시가의 현황
3. 배설 추모시가의 내용
4. 배설 추모시가의 의의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배설(裵說) 추모시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배설의 절명, 배설 추모시가의 현황, 내용 및 의의에 대해 살폈다. 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배설은 『대한매일신보』의 최초 발행인인 영국인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Ernest Thomas Bethell, 1872년 11월 3일 ~ 1909년 5월 1일)의 한국식 이름이다. 1904년에 대한제국으로 건너온 배설은, 애국계몽기에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배일 논조를 펼쳤다. 이 일로 배설은 1907년, 1908년에 영일 양국의 기소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1908년 재판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1909년에 심장확장으로 절명했다.

배설 사후인 1909년 5월 5일부터 5월 10일에, 대한매일신보사는 배설 추모시가를 모집한다는 사고(社告)를 『대한매일신보』에 냈다. 그 결과로 국문판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38816).

** 전남대학교

『대한매일신보』 스조란에 「익고익고」(1909년 5월 6일자) 1편, 「비설씨 상스에 통곡」(1909년 5월 9, 12, 13, 14, 30일자) 5편 등 총 6편의 배설 추모시가가 게시되었는데, 이 글은 배설 추모시가의 이러한 현황을 살폈다.

이 글은 배설 추모시가 6편의 내용에 대해 구명했다. 배설 추모시가 6편은 작품에 따라 내용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지만 이를 종합한 결과, 배설 추모시가는 대체로 초혼, 망자의 행적, 망자에 대한 칭송과 애도, 망자의 사인, 망자의 한에 대한 위로, 망자의 절명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생자의 비애, 소망 및 다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았다.

이 글은 배설 추모시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고찰했다. 첫째, 배설 추모시가는 ‘죽음’이라는 인간 보편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망자와 생자가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가운데, 생자가 계몽, 자강, 독립을 다짐하는 발화를 통해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배설 추모시가는 근대적 인쇄매체인 신문에 실려 대중 독자와 더불어 공적 인물인 배설을 추모하고, 당대의 시대적 과업인 계몽, 자강, 독립의 정론을 공유하고 있다. 셋째, 배설 추모시가는 고대가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에서 출발하는 한국 추모시가의 계보를 잇고 있다.

핵심어 : 배설(베델), 대한매일신보, 코리아 데일리 뉴스, 추모시가

1. 머리말

배설(裴說)은 『대한매일신보』의 최초 발행인으로 알려진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Ernest Thomas Bethell, 1872년 11월 3일 ~ 1909년 5월 1일)의 한국식 이름이다. 배설은 영국인 출신인데, 애국계몽기에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항일 언론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대한매일신보사는 배설 사

후인 1909년 5월 5일부터 10일까지 국문판 『대한매일신보』에 “본샤 전샤장 비설 씨 별세에 디흐야 제군즈의 만장과 도문호시는 글을 특별히 기념물노 두고져 호오니 지어 보내시는 첨군즈는 성함을 즈세히 써서 보내심을 브라음”¹⁾(띄어쓰기: 인용자)이라는 사고(社告)를 내고, 독자들이 투고한 배설 추모시가 6편을 국문판 『대한매일신보』 스조란에 게시했다. 이 글은 국문판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시가 가운데 배설의 절명을 애도하는 추모시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이 배설 추모시가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설 추모시가는 한국인의 독립과 계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느 한 영국인에게 한국인이 예를 갖추어 국문으로 쓴 만사(輓詞)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문학사에서 외국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제작한 추모시가는 배설 추모시가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드문 편이며, 배설 추모시가는 『대한매일신보』 집필진의 기획하에 제작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주목한 바에 따르면, 배설은 애국계몽기에 한국인에게 영향력 있는 공적 인물이며 대한매일신보사의 상징적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애국계몽기에 정론(政論)을 형성하는 『대한매일신보』와 그 최초 발행인인 배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배설 추모시가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배설 추모시가에 관한 연구 성과는 학계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실정이다.²⁾ 『대한매일신보』 국문시가의 주제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

1) 『대한매일신보』 광고, 1909년 5월 5일.

2) 배설 추모시가를 논의한 연구 성과는 미비하지만, 배설의 생애 및 배설과 『대한매일신보』의 관계를 다룬 연구 성과는 그동안 신문방송학, 역사학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참고로 배설의 생애 및 배설과 『대한매일신보』간의 관계를 논의한 주요 논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은경, 「大韓每日申報에 關한 考察-申報의 主體的 姿勢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5; 정진석, 「대한매일신보의 제작진과 경영자금에 관하여」, 『신문연구』 겨울 통권 제40호, 관훈클럽, 1985; 정진석, 「The Korean problem in Anglo-Japanese relations 1904-1910 Ernest Thomas Bethell and His Newspapers : the Daehan Maeil Sinbo and the Korea Daily News」,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87; 정진석, 「한국문제에 관한 영일간의 외교교섭, 1904~1910」, 『신문연구』 여름 통권 제43호, 관훈클럽, 1987; 정진석, 『대한매일신보와 배설-한국문제에 대한 英日외교

이 대체로 『대한매일신보』 국문시가에 재현된 계몽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글은, 먼저 논의의 예비적 단계로서 배설의 항일 언론 운동과 절명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문판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배설 추모시가를 대상으로 배설 추모시가의 현황, 내용 및 의의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의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배설 추모시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배설 추모시가를 추모시 계열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배설의 절명과 배설 추모시가의 현황

배설은 1872년 11월 3일에 영국 브리스톨 북부에 위치한 애설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친인 토마스 헨콕 베텔(Thomas Hancock Bethell)의 명³⁾에 따라 1888년에 일본 개항장 중의 하나인 고베로 이주했고, 일본을 비롯하여 동양의 골동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1904년 2월 8일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이때 배설은 영국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Daily Chronicle)』의 특별통신원이 되어, 러일 전쟁을 취재하고자 1904년 3월 10일에 대한제국에 왔다.

그런데 대한제국에서는 『독립신문』 영문판인 『The Independent』가 1899년 12월 4일에 폐간된 이래로 외국인 통신원에게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영자 신문이 발간되지 않았다. 배설은 대한제국 언론계의 이러한 현실을 착안하여 신문을 발간하기로 했다.⁴⁾ 그리하여 배설은 토마스 코웬(Thom

』, 나남, 1987; 정진석, 「국채보상운동과 언론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 제8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3; 한국언론사연구회, 『대한매일신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김도형,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유럽인 연구」, 『한국학논총』 제37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정진석,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동포를 구하라-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의 열정적 생애』, 기과량, 2013; 정진석, 『배설(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영국 언론인)』, 역사공간, 2013.

3) 「비설공의 횡장」,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9년 5월 7일.

as Cowen), 양기탁(梁起鐸)의 도움을 받아 1904년 7월 18일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국문판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Korea Daily News』를 발행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애국계몽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배일 논조를 전개하고, 대한제국의 자강과 개혁을 주장한 일간지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배설이 「조영 수호 통상 조약」(1883)에 의해 대한제국에서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았고⁵⁾, 이로 인해 『대한매일신보』가 일제의 사전 검열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설의 반일적 태도는 1904년 7월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⁶⁾ 이 무렵에 창간된 대한매일신보사는 처음부터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직접 맞서지 않았다. 그런데 1904년 9월 2일부터 7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논설 「한국에 일본 위력이라」는 배설과 일본대리공사 하기와라 모리이치(萩原守一)간에 불화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배설이 반일적 태도를 갖는 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한매일신보사는 이 논설에서 “장삼 씨의 황무지 기간 스건 제출함은 한국 토지를 장중에 너으랴 흙이 분명홀지라”(띄어쓰기: 인용자) 하고 표면상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던 전 일본 대장성의 관방장 나가모리 도키치로(長森藤吉郎)를 비롯해 나가모리의 배후에 있던 일본 정부를 반대하는 논조를 강력하게 펼쳤다. 그러한 가운데 대한매일신보사는 이 논설의 마지막 회에서 “일본 외교관 중 교섭에 흥난하며 직예가 ◆⁷⁾민흔 사람이

4) 「빅설씨의 공판 던말」,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8년 7월 2일.

5) 「조영 수호 통상 조약」 제3관 4항은 치외법권에 관한 조항으로 “조선에서 법을 어긴 영국 인민은 영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영국 사법 당국이 심리, 처리한다(A British subject who commits any offence in Corea shall be tried and punished by the British Judicial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laws of Great Britain).”고 규정했다(최덕수 외, 「원문편-조영수호통상조약(1883.11.26.)」,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810쪽 발췌 및 역해).

6) 「빅설씨의 공판 던말」,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8년 6월 30일.

7) 이 글은 인용문에서 판독이 어려운 글자는 약물 ‘◆’로 표기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하나만 잊드리도 가히 취지를 세워 한국에 완고한 구습으로 간소한 무리들을 다 업시하고 정부에 부귀함을 심각히야 실효가 있게 할 만히거늘 우금껏 아무것도 성취되게 한 거시 업슨 즉일 후 일본 스적에 일한량국 왕스를 괴롭하게 되드리도 다만 무단히 강압만 하였을 뿐이요 하나도 ◆익된 거슨 업다고 분명이 말할 터인지라”⁸⁾(띄어쓰기: 인용자)는 구절은 하기와라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이 논설이 발표된 시기는 「을사늑약」(1905) 이전, 곧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에 통감을 과견하기 전에 해당하므로, 이 논설에서 대한제국에 대해 강압만 할 뿐 교섭에 능란하지 못하고 재예가 뛰어나지 못한 외교관이 바로 당시에 일본대리공사였던 하기와라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 일이 있는 후, 하기와라는 배설이 AP(The Associated Press) 통신의 서울 주재 통신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고 배설이 일본 공사관에 접근하는 것도 막기도 했으며⁹⁾, 일본 공사관은 배설에게 지원하던 신문 발간 찬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¹⁰⁾

한편, 배설의 항일 언론 운동은 일본과 영국의 외교상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대에 제1차 「영일 동맹」(1902), 제2차 「영일 동맹」(1905)을 맺은 영국과 일본은 우호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배설 논조를 전개하는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자, 소유주, 편집자가 영국인 배설이기 때문이다.¹¹⁾ 둘째, 『대한매일신보』 독자 가운데 한문을 아는 사람은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 여러 사람이 듣게 했는데¹²⁾, 한국인 사이에 『대한매일신보』의 배설 논조를 공유한 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하는 데 방해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대한매

8) 「한국에 일본 위력이라», 『대한매일신보』 논설, 1904년 9월 7일.

9) 정진석,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동포를 구하라-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의 열정적 생애』, 기파랑, 2013, 175~176 쪽.

10) 정진석, 「The Korean problem in Anglo-Japanese relations 1904-1910 Ernest Thomas Bethell and His Newspapers : the Daehan Maeil Sinbo and the Korea Daily News」,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87, 136쪽.

11) 「비설씨의 공판 던말」,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8년 6월 21일.

12) 「비설씨의 공판 던말」,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8년 6월 21일.

일신보』의 1일 발행부수는 일본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1908년 5월 27일 기준으로 “영문관 463부(서울 120부, 지방 280부, 외국 63부), 국한문관 8,143부(3,900부, 지방 4,243부), 국문관 4,650부(서울 2,580부, 지방 2,070부) 합계 13,256부(서울 6,600부, 지방 6,593부, 외국 63부)”¹³⁾에 달할 정도로 『대한매일신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영향력 있는 신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배설은 일본 통감부와 영국 총영사관의 공동 기소에 의해 1907년 10월 14일과 1908년 6월 15~17일에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¹⁴⁾

그런데 배설은 1908년에 있었던 재판으로 인해 1909년 3월 초에 심장병이 발병했다.¹⁵⁾ 배설의 건강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듯하다가 생명이 위독해질 정도로 악화되었다.¹⁶⁾ 결국 배설은 심장확장¹⁷⁾으로 1909년 5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정동의 아스토 하우스 호텔(Astor House Hotel)에서 37세에 생을 마감했다.¹⁸⁾

배설의 장례식은 배설이 영면한 다음날인 5월 2일 오후 3시에 배설의

13) 『統監府文書』 제2권, 「警秘」 제202호, 「大韓每日申報社의 현황」에 첨부된 「『大韓每日申報』 발행지 數調(5월 27일 현재)」 참조.

14) 할애된 지면의 한계로 영일 양국의 기소에 의한 두 차례의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1907년 10월 14일 재판은 『統監府文書』 제4권, 「往電」 제155호, 1907년 10월 16일, 이토 통감(伊藤 統監) → 하야시 외무대신(林 外務大臣), 「베텔 재판상황 보고 件」 참조. 한편, 1908년 6월 15~17일 재판은 『統監府文書』 제2권, 1908년 5월 27일, 미우라 야고로(일본제국 통감부 서기관)(Sd, Yagoro Miura(Secretary to H. I. J. M's Residency General in Corea)), H. P. 윌킨슨(영국정부 검사)(Sd H. P. Wilkinson H. B. M's Crown Advocate), 「大韓每日申報의 韓國民衆煽動記事에 대한 統監府 提訴」; 1908년 6월 15~17일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빅설씨의 공판 던말」,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8년 6월 20일~8월 7일 참조.

15) 「빅설공의 횡장(속)」,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9년 5월 8일; 「排設公의 略傳續」, 『大韓每日申報』 別報, 1909년 5월 8일.

16) 『統監府文書』 제6권, 「憲機」 제895호, 1909년 4월30일, 「「베텔」 病勢惡化로 歸國 決心 件」.

17) 정진석, 앞의 책, 469쪽; 김도형,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유럽인 연구」, 『한국학논총』 제37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539쪽.

18) 「명인가 운수인가」, 『대한매일신보』 잡보, 1909년 5월 2일.

홍파동 집에서 행해졌다.¹⁹⁾ 일본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이날 배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양기탁, 안창호(安昌浩), 심의성(沈宜性), 여병현(呂炳鉉), 영국 총영사관 서기생으로 그 외에는 영국인 선교사 3명, 경신학교(敬新學校) 생도 90여 명, 왕신학교(旺新學校) 생도 60여 명, 기독교 신자 한국인 240여 명 등 400여 명에 달했다.”²⁰⁾고 한다. 배설의 장지(葬地)는 양화진이었는데, 이날 양화진으로 가는 길은 한국인 참배객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에 대해 배설의 미망인인 마리 모드 게일(Mary Maude Gale)은 배설의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망부 비설 씨 장례식에·각 사회·교회·학교·스립·부인사회와 개인의 넋외국 신스 제씨께서 회장리 참하신 성의에 덕하야 감사헌 뜻은 말하기 어렵스오며 본인도 망부지세에 대한동포로 더부러 근절하던 숙연을 승하야 시종을 여열히 하고져 하느이다”²¹⁾(띄어쓰기: 인용자)고 한국인 참배객에게 감사하는 글을 써서 1909년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한매일신보』 사고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많은 한국인이 영국인 배설의 죽음을 애도했던 까닭은, 배설이 한국을 사랑하고²²⁾ 한국을 위해 위험함을 피하지 않았으며²³⁾ 절명하는 순간에도 양기탁에게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싱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제하라”²⁴⁾(띄어쓰기: 인용자)고 유언을 남겼던 만큼 한국 동포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배설이 발행한 “『대한매일신보』는 정의를 주장하고 대한국의 독립 지도에 관해 많은 공적이 있다.”²⁵⁾고 한국인 독자에게

19) 「비공장례」, 『대한매일신보』 잡보, 1909년 5월 2일.

20) 約四百ト算セラレ其重ナルモノハ梁起鐸·安昌浩·沈宜性·呂炳鉉·英國總領事館書記生ニシテ其他ハ英國人宣教師三名·敬新學校生徒九十餘名·旺新學校生徒六十餘名基督敎信者韓人貳百四十餘名ナリ。(『統監府文書』 제9권, 「警秘」 제1139호, 1909년 5월 6일, 경시총감 와카마야시 라이조(警視總監 若林賚藏) → 외무부장 나베시마 게이지로(外務部長 鍋島桂次郎), 「故「ベセル」追悼會ノ狀況」)

21) 『대한매일신보』 광고, 1909년 5월 5일.

22) 「비설공의 hing장(속)」,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9년 5월 8일.

23) 「비설공의 hing장(속)」,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9년 5월 8일.

24) 「비설공의 hing장(속)」,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9년 5월 8일.

25) 大韓毎日申報ハ正義ヲ唱へ大韓國ノ獨立指導ニ關シ多大ノ功績アリ(『統監府文書』 제4권, 「警秘收」 제8824호의 1, 1908년 10월 10일, 내부경무국장 마쓰이 시게루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한매일신보사가 독자를 대상으로 배설 추모시가를 모집한 것은 배설의 이러한 행적을 추념하기 위한 행위로 이해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매일신보사는 국문판 『대한매일신보』 스조란에 1909년 5월 6일에 「익고익고」 1편을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5월 9, 12, 13, 14, 30일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을 각 1편씩 게시했다. 이처럼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배설 추모시가는 총 6편이다. 다음의 <표>는 『대한매일신보』에 게시된 배설 추모시가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배설 추모시가의 목록

연번	제목	투고자	『대한매일신보』 발행일
1	익고익고	미상	1909년 5월 6일
2	비설씨 상스에 통곡	김지호	1909년 5월 9일
3	비설씨 상스에 통곡	마리연, 김	1909년 5월 12일
4	비설씨 상스에 통곡	영연싱	1909년 5월 13일
5	비설씨 상스에 통곡	한국싱	1909년 5월 14일
6	비설씨 상스에 통곡	리인환	1909년 5월 30일

위의 <표>에서 배설 추모시가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표>에서 6의 리인환 작품은 1~5에 비해 발표 시기가 다소 늦지만, 배설 추모시가 6편은 배설이 절명한 달인 5월 한 달 동안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대한매일신보사가 1909년 5월을 배설의 절명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지정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표>에서 1의 「익고익고」의 제목은 상중에 우는 소리를 표현하는 감탄사로 되어 있고, 2~6의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제목은 통곡하는 원인이 배설의 상사(喪事), 즉 절명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배설 추모시가의 제목 가운데 ‘익고익고’는 1회, ‘비설씨 상스에 통곡’

(内部警務局長 松井茂) → 부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副統監 子爵 曾禰荒助), 「大韓每日申報 모집 國債報償金 소비사건에 대한 신문구매자 및 一進會와 大韓協會員의 논평에 관한 件」)

은 5회 등장한다. 1의 「익고익고」는 배설 추모시가의 모집을 사고를 통해 공지한 다음날에 발표된 작품으로 배설 추모시가의 창작을 시도한 작품이고, 2~6의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동일한 제목 아래 배설 추모시가의 지속적인 창작을 지향한 작품임을 추정할 수 있다.

셋째, 2~6은 “김치호”, “마리연, 김”, “영연싱”, “한국싱”, “리인환”이라는 작자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자들이 망자(亡者) 배설과 소통을 시도하는 생자(生者)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배설 추모시가는 대한매일신보사의 치밀한 주도 아래 창작되었고 ‘배설 추념’이라는 목적성이 뚜렷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글은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배설 추모시가 6편을 다루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은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누리집에 수록된 『대한매일신보』의 디지털 복원 국문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다.²⁶⁾

3. 배설 추모시가의 내용

3.1. 「익고익고」(1909년 5월 6일)

「익고익고」는 1909년 5월 6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작품으로, 배설 추모시가 중 첫 작품이기도 하다. 다음은 「익고익고」의 전문이다.

26) 『대한매일신보』의 디지털 복원 원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누리집 고신문 라이브러리(<http://www.bigkinds.or.kr/mediagaon/goNewKeyword.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디렉토리 상에서 현전하는 국문판 첫 호는 1904년 8월 4일자, 현전하는 영문판 첫 호는 1907년 5월 18일자, 현전하는 국한문판 첫 호는 1905년 8월 1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고신문 라이브러리에서는 『대한매일신보』의 국문판, 영문판 및 국한문판의 디지털 원문을 PDF 파일로 변환 및 제공하고 있다.

- [1]27) 익고익고 비설공아, 원통절통 비설혼아, [2] 혈통스친 우리민족, 공을좃쳐 가리로다, 어린즈식 부모밋듯, 공을밋고 브랏더니, 영결종턴 웬일인가, [3] 공의병근 알고보니, 가련히고 한심하다, 부모고국 리별히고, 일편단심 우리민족, 창귀굴에 구혀려다, 뜻과긋지 못함으로, 영영가고 아니오니, 꿈이인가 실시인가, [4] 한국혼아, 비설혼아, 미일미일 엇지볼까, 원혼원혼 비설혼아, 말흔마디 부탁혀자, 공의평싱 밋친므음, 샹데스전에 주달혀소, 동반도가 업셔질까, 공의대은 니즐손가, 아마도, 우리민족들 창귀굴에 버셔날쎄.
- [5] 싱불여스 동포들아, 우리국운 기박흔들, 요로스툷 줄친드시 가련홀스 우리민족, 어이어이 사잔말고, 만만창귀 경스낫네, 대한반도 동포들아.
- [6] 이목구비 캄캄혀여, 다시홀말.
대한이천만동포는 도문²⁸⁾

위에서 제시하는 「익고익고」의 본문은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고려하고 6일자 「익고익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에서 [1]은 “익고익고” 곡하는 소리와 더불어, “비설공아” 하고 망자 배설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작자는 “원통절통 비설혼아” 하고 배설의 혼을 비통하게 부른다. 이처럼 작자가 “비설공아”, “비설혼아” 하고 배설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는 것은 초혼(招魂)의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배설의 혼을 불러낸 다음, [2]에서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혈통이 끊긴 “우리민족”은 배설의 공적을 좃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작자는 망자인 배설을 “부모”에, 생자인 우리 민족을 “어린즈식”에 비유한다. 그리하여 작자는 우리 민족이 부모처럼 여기는 배설이 죽어 그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다[영결종턴]고 언급하면서 우리 민족과 배설의 관계 단절에서 기인한 상실감과 비탄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로써 작자는 죽은 배설을 칭송하고, 배설의 부재가 우리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27) 원문에는 ‘[]’와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작품 분석을 위해 본문 안에 ‘[]’와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입했음을 미리 밝힌다.

28) 「익고익고」, 『대한매일신보』 사즈, 1909년 5월 6일.

[3]은 배설이 병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음을 언급한다. 배설이 병에 걸린 원인은 일편단심으로 우리 민족을 “창귀굴”, 즉 일제의 속박에서 구해주려고 했으나 그 뜻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작가는 배설이 대한제국 독립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가서 영영 아니 온다고 한다. 따라서 작자는 한일 병합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부모 처럼 여기는 배설의 죽음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므로, 배설의 죽음에 대해 “꿈이인가 실시인가”라고 언술한다.

[4]에서 작자는 “빅설혼”을 “한국혼”과 동일시한다. 그 이유는 앞의 [2],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에 맞서던 배설은 우리 민족의 부모와 같은 존재이며 그의 죽음은 대한제국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자는 배설의 부재로 인해 대한제국과 우리 민족의 존립이 배설 생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상황을 “미일미일 엇지볼까” 하고 우려한다. 그리하여 작자는 자신이 불러낸 배설의 혼에게 “공의평싱 밋친므음”, 즉 대한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제에게 아뢰 것을 부탁한다. 작자의 이러한 부탁은 생자인 우리 민족의 미래를 축원하는 일로써, 하늘에 있는 상제와 지상에 있는 우리 민족을 배설의 혼이 매개하여 상제가 우리 민족의 대한독립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주술적 믿음이 전제된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작자는 “동반도가 업셔질까, 공의대은 니즐손가, 아마도, 우리민족들 창귀굴에 버셔날째” 하고 도치법을 활용하여 발화한다. 이것은 상제가 작자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면 “동반도”, 즉 대한제국이 존속할 것이고, 대한제국이 존속하면 공의 대은을 잇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로써 작자는 자신의 독립 의지와 배설의 살아생전의 뜻을 동시에 강하게 표출한다.

제2장의 [5]에서 작자는 배설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한 “동포들”을 가련하게 여기고 국운이 쇠해진 대한제국을 걱정한다. 하지만 작자는 배설을 떠나보낸 대한제국과 우리 민족을 위로하지 못한다. 배설이 부재하는 상황은 “만만창귀”, 즉 일제에게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의 백 마디 말보다 한 외국인이 창간한 『대한매일

신보』의 한 줄의 기사가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강력하고 『대한매일신보』가 일본의 악정을 반대하여 한 사람을 선동한다고 말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발언²⁹⁾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이처럼 배설이 부채하는 현실은 일제에게는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제3장의 [6]과 같이 “이목구비 캄캄”할 일이다. 그럼에도 작자는 “대한이천만동포는 도문”할 것을 당부하며 작품을 끝맺는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배설을 조문하는 행위를 통해 배설을 기리고 배설의 독립 의지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는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작자는 우리 민족이 배설을 잃은 슬픔으로 좌절하지 말고, 일제의 지배하에 우리 민족 공동체가 성취하려는 대한독립의 의지를 회복할 것을 유도한다.

이상과 같이, 「이고이고」는 [1] 초혼, [2] 망자에 대한 칭송과 생자의 슬픔, [3] 망자의 사인 및 망자에 대한 애도, [4] 생자의 슬픔과 소망, [5] 생자의 슬픔, [6] 생자의 다짐 등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이고이고」는 생자가 망자의 혼을 불러내어 망자의 혼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망자의 사인을 회고하고, 이때 회고는 생자의 슬픔으로 전환되며, 생자는 망자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소망과 다짐을 발화한다.

3.2. 「비설씨 상스에 통곡」(1909년 5월 9일)

대한매일신보사는 1909년 5월 9일자부터 ‘비설씨 상스에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배설 추모시가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김재호가 쓴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원문이다.

[1] 말흔마딕 흐랏흐니 눈물문져 소사나내

29) 伊藤의 百言보다 新聞의 一筆이 韓人을 感動케 하는 力이 太強호디 加之에 現今 韓國에서 發刊호는 一外國人의 每日報는 確證이 有호 日本의 一般惡政을 反對호야 韓人을 煽動호미 連續不絶호디 此에 關호 機會에 就호야는 統監이 難可受責이로다 (「伊藤演說」, 『大韓每日申報』 잡보, 1907년 2월 12일)

- 이내눈물 진정하고 설운중에 붓을잡네
 [2] 대영국인 비설씨는 대한국을 위하여서
 즈기자산 잇는디로 신문샤를 창설하고
 죽게되는 대한인종 아모도록 살나라고
 흉악흔놈 공격하고 착흔사름 포양터니
 [3] 이고답답 이고답답 이를엇지 흥잔말가
 우리은인 비설씨여 우리은인 비설씨여
 우리인종 구하라고 로심초스 흥든싯혜
 팔주일 심화병이 빅약무효 슌흐도다
 [4] 공의육신 죽엇스나 공의령혼 살어잇고
 공의육신 죽엇스나 미일신보 살어잇네
 공의얼골 못본사름 미일신보 보사이다
 천만디를 지내기로 공을엇지 니즐손가
 공의형용 모본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저
 [5] 못닛갯네 못닛갯네 공의공뢰 못닛갯네
 김지호 통곡지비³⁰⁾

9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서두인 [1]에서 작자는 배설의 절명으로 솟아나는 눈물을 진정시켰지만, 서러운 마음으로 배설을 추모하는 시가를 쓰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로써 작자는 생자의 슬픔을 토로한다.

[2]에서 작자는 영국인 출신인 배설이 “대한인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재산으로 대한매일신보사를 창설하고³¹⁾, “흉악흔놈 공격하고 착흔사름 포양”했다고 함으로써, 배설의 업적을 언급한다. 여기에서 “흉악흔놈”은 일제를, “착흔사름”은 한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대립적 표현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게 잠식당하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배설이 『대한매일신보』를

30) 「비설씨 상스에 통곡」, 『대한매일신보』 사즈, 1909년 5월 9일.

31) 1908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2심에서 검사 월킨슨의 심문이 있었는데, 이때 배설은 대한매일신보사의 창간 자금에 대해 밝혔다. “그디는 자본이 업시 이거슬 시작하엿는뇨”라는 월킨슨의 질문에 배설은 “천원 가량은 잇섯는이다”고 답변했다(「비설씨의 공판 언말」,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8년 7월 3일). 이를 통해 배설이 대한매일신보사를 창간할 때 초기 자금으로 자신의 재산 1,000엔(円)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창간한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구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제국에 주재하는 외국통신원에게 뉴스거리를 제공할 영자 신문이 없었던 데 있다. 이처럼 [2]는 배설의 살아생전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망자와 화자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제문일수록 망자를 칭송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제문의 창작 경향³²⁾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에서 작자는 “우리은인”으로 표상되는 배설이 “우리인중”을 구하려다가 심화병(心火病)을 얻었다고 언급한다. 배설은 심화병으로 병석에 있는 8주 동안 백약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절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작자는 “이고답답 이고답답”하다고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작자는 [4]에서 비록 “공의육신 죽었스나 공의령혼 살아있고 매일신보 살아있네” 하고 언술한다. 그리하여 작자는 배설의 얼굴을 보지 못한 독자에게 배설의 영혼이 깃든 『대한매일신보』를 구독할 것을 권유하고, 배설의 모습을 모본한 기념비를 세워 배설의 공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독자를 향한 작자의 이러한 당부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망자 배설에게 마음의 빛을 갚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³³⁾, 배설이 성취하지 못한 대한독립의 의지를 독자에게 이식하려는 의도에서 말한 발언이다. 한편, 작자는 [5]에서 “못닛겠네 못닛겠네 공의공뢰 못닛겠네” 하고 자신 또한 배설의 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생자의 슬픔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이상과 같이, 9일자 「비설씨 상소에 통곡」은 [1] 생자의 슬픔, [2] 망자의 공적, [3] 망자의 사인과 생자의 슬픔, [4] 생자의 다짐, [5] 생자

32) 이영호, 「관습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조선후기 제문 양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2집, 한국작문학회, 2006, 205쪽.

33) 이성혜는 제문을 통한 생자의 심리치유 중의 하나로 망자에 대한 ‘빛짐의 解消’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성혜는 “사실상 모든 죽음에 대해 남은 자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빛”이 있음을 언술하고, “남은 자들은 때늦었지만 一方的인 자기 고백서인 제문을 통해서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성혜, 「祭文, 위로와 치유의 서사」, 『퇴계학논총』 제23집, 퇴계학연구원, 2014, 137~138쪽 부분 발췌).

의 다짐과 슬픔 등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9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생자의 슬픔이 작품의 주된 정서를 형성하고 내용의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

3.3. 「비설씨 상스에 통곡」(1909년 5월 12일)

다음은 1909년 5월 12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마리연, 김의 「비설씨 상스에 통곡」 전문이다.

- [1] 이고이고 비설씨여 참아엇지 간단말가
- [2] 대영국의 영웅으로 대한국의 인연되어
 룡칠년의 공의은덕 이천만인 썸씨엿네
 공의은덕 공의은덕 대한미일 신보로다
- [3] 오던날을 싱각안코 어이그리 속히가노
 구제코져 흐든던중 공의지휘 안듯던가
 공의홀일 다히다고 공은간다 흠이런가
 명지경각 대한인중 지성으로 구히더니
 간단말이 웬말이오 이고이고 이고이고
- [4] 공을넋지 아니라면 댁일신보 보리로다
- [5] 양화도의 물소리는 공의음성 완전하고
 삼천리의 이천만은 공을위히 통곡일세
 마리연, 김, 통곡비지³⁴⁾

12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서두인 [1]은 “이고이고” 하며 곡하는 소리로 시작한다. 이어서 작자는 “비설씨여” 하며 망자가 된 배설을 부른 뒤에 망자에게 “참아엇지 간단말가” 하고 배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생자의 슬픔을 토로한다.

[2]는 배설이 1904년 3월에 대한제국에 와서 1909년 5월에 생을 마감한 6년 동안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을 통해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가

34) 「비설씨 상스에 통곡」, 『대한매일신보』 사즈, 1909년 5월 12일.

계몽, 자강 및 독립할 것을 주창했다. 계몽, 자강, 독립은 당대에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었다. 이 가운데 계몽은 과거의 인습에 젖은 “이천만인 썩씨”게 하는 깨우침인데,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대한제국에서 계몽을 위해 한국인이 먼저 나서는데는 정치적 제약이 있었다. 때문에 당대에 계몽을 강조하는 일은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는 배설과 그가 발행하는 『대한매일신보』에 의해 가능했다. 따라서 작자는 “이천만인 썩씨”게 했던 배설을 “대영국의 영웅”으로 상징하고, 배설의 업적에 대해 “공의은덕 공의은덕”이라고 거듭 칭송한다.

하지만 작자는 이내 [3]에서 “오던날을 싱각안코 어이그리 속히가노” 하고 배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37세의 젊은 나이에 저승으로 가버린 것을 원망한다. 또한 작자는 배설의 혼에게 “구제코져 흐든던중 공의지휘 안듯던가 공의홀일 다히다고 공은간다 흠이런가” 하고 우리 민족이 의지했던 배설과의 단절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낸다. 한편, 배설이 대한제국에 체류한 6년 동안에 “공의홀일”, 즉 배설이 『대한매일신보』를 발행하고 “대한인종”을 계몽하려고 했던 일을 끝마쳤다고 죽어버리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대한인종”은 이제 의지할 사람이 부재하게 된다. 이에 작자는 “간단말이 웬말이오” 하며 배설의 절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생자의 한을 담아 “이고이고 이고이고” 하는 곡소리를 반복한다. 이처럼 작자는 [3]에서 망자 배설에 대한 원망을 배설의 죽음을 부정하는 태도로 전환시키고, 마침내 곡소리를 낸다. 이것은 작자가 배설과의 관계 단절에서 기인한 상실감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로 이해된다.

작자는 [4]에서 배설을 잃은 상실감을 이겨내고, 부정했던 배설의 부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리하여 작자는 배설을 기리기 위해 『대한매일신보』를 구독하겠다고 다짐한다. 이것은 작자가 배설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앞의 [2]와 같이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은 배설의 공덕 중의 하나이므로, 『대한매일신보』의 구독은 우리 민족의 일원인 작자가 배설에게 진 마음의 빛을 갚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에서 작자는 양화도를 둘러싼 한강의 물소리는 배설의 음성처럼 뚜

렸하다고 한다. 이 작품은 배설이 죽은 지 11일째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작자는 배설의 영혼이 양화도를 아직 떠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작자는 배설의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삼천리의 이천만”, 즉 우리 민족은 “공을위히 통곡일세” 하고 제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12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1] 초혼, [2] 망자의 공적, [3] 망자에 대한 원망, 망자의 죽음에 대한 부정과 생자의 슬픔, [4] 생자의 다짐, [5] 망자에 대한 위로 등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12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앞서 발표된 6, 9일자 작품들과 달리 망자에 대해 원망하고 망자의 죽음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이 새롭게 나타난다. 아울러 작자는 망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짐을 하고 망자를 위로함으로써, 망자에 대한 원망과 망자의 죽음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를 주체적으로 성숙하게 극복한다.

3.4. 「비설씨 상스에 통곡」(1909년 5월 13일)

다음은 1909년 5월 13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영연생의 「비설씨 상스에 통곡」 전문이다.

- [1] 서양세계 하직하고 동양으로 건너올제
비에가득 즙선심은 죽는인중 구완하고
충분소격 분흔모음 악흔놈을 공격이라
- [2] 여보우리 동포들아 죽는인중 거누구며
악흔놈은 거누군가 가지마오 비설씨여
익고익고 엇지홀고 영결종턴 어인일가
- [3] 익고답답 이내심스 진땀홀길 바이업네
우리인싱 구흐랴고 쥬야열심 분주흐야
칠년풍상 한국너에 익도만히 썬지마는
춤아엇지 눈을감쇼 다시말이 업단말가

- 마옵쇼셔 마옵쇼셔 하느님은 마옵쇼셔
삼십칠세 더청춘을 어이급히 드려가노
- [4] 풍우쳐쳐 양화도에 홀노누은 비설공아
무심중의 부는바람 공의훈습 그아니며
히염업시 오느비는 공의눈물 이아닌가
- [5] 공산야월 적막헌데 두견성을 엇지허리
슬허마오 비설씨여 공의홀일 다히도다
익일신보 장훈스업 독립기초 그아니며
륙대주에 의리남즈 공밧게는 쏘업느니
한국인종 되는자야 공을엇지 니즐손가
공의스업 계속코져 공의부인 쏘나셔며
공의령운 팔세으가 어른보다 비승히고
공의뜻을 어김업시 만함씨가 열심일세
천추만디 지나가도 공의일흠 빛나려니
대한독립 흐느날에 공의령혼 즐기소서
영연싱 통곡직비³⁵⁾

13일자 「비설씨 상수에 통곡」의 서두인 [1]은 배설의 행적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배설이 하직한 “서양세계”는 그가 태어난 영국이고, 배설이 영국에서 건너와 도착한 “동양”은 일본이다. 배설이 영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하던 때는 1888년이었는데, 이때 배설의 나이는 17세였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배설이 일본으로 이주한 목적은 애초부터 “죽는인종”, 즉 우리 민족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부친의 명에 따라 일본 고베에서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서 [1]의 내용은 배설의 생애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망자의 인생 가운데 특징적 국면을 편철하는 제문의 특성³⁶⁾과 배설이 당대에 공적이고 사회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배설 추모시가의 창작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5) 「비설씨 상수에 통곡」, 『대한매일신보』 사즈, 1909년 5월 13일.

36) 최윤희, 「《견문록》 소재 한글 제문의 글쓰기 방식과 갈래적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433쪽.

한편, 작자는 [1]에서 “비에가득 즈션심은 죽는인종 구완하고 충분소격 분흔只음 악흔놈을 공격이라”고 말한다. 작자의 이러한 발언을 당대의 시대적 맥락에서 미루어 보면, 배설이 자선심으로 구한 “죽는인종”은 우리 민족이고, 충의로 인해 일어나는 분한 마음[충분소격]으로 공격한 “악흔놈”은 일제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작자는 “죽는인종”과 “악흔놈”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2]에서 “우리동포”에게 “죽는인종 거누구며” “악흔놈은 거누군가” 하고 묻는다. 이것은 “우리동포”가 배설이 없이 일제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작자가 “우리동포”의 항일 의지를 다지게 하기 위해 “우리동포”에게 “죽는인종”과 “악흔놈”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작자는 “가지마오 비설씨여” 하며 “악흔놈”을 공격할 배설이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고이고 엇지홀고 영결종턴 어인일가” 하고 배설과의 영원한 이별을 통탄한다.

배설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3]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전환된다. 작자는 자신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배설이 “우리인싱”, 즉 우리 민족의 삶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머무는 6년 동안 주야로 분주하고 애를 많이 썼지만,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미처 구하지 못하고 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작자는 37세밖에 되지 않은 배설을 하나님을 급히 데려간 것에 대해 원망한다.

[4]에서 배설의 장지인 양화도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뻗속까지 추위가 스며드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양화도에 홀로 쓸쓸히 누워 있는 배설의 주검은 편안히 잠들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작자는 양화도에 몰아치는 “풍우”를 구체적으로 “무심중의 부는바람”과 “희염업시 오는비”로 대별하여 표현한다. 그리하여 작자는 “무심중의 부는바람”을 “공의흔숨”에, “희염업시 오는비”를 “공의눈물”에 빗댄다. 여기에서 “흔숨”과 “눈물”은 배설이 우리 민족을 구제하지 못하고 요절한 데서 기인한 한(恨)이 투사된 것으로 보인다.

[5]에서 공산에 달도 적막한데, 망자의 혼을 부르는 초혼조(招魂鳥), 즉 두견새의 소리가 들린다. 작자는 두견새를 통해 [5]에서 평안히 잠들지

못한 배설의 원혼을 불러내어 망자 배설에게 “슬퍼마오 비설씨여 공의홀 일 다향도다” 하고 말한 뒤에, 배설의 원혼을 달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공의홀일”은 배설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가 대한제국 독립의 기초를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제 치하에 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일은 의협심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작자는 배설을 “륙대주에 의리남즈”³⁷⁾로 이미지화한다. 그리고 작자는 우리 민족에게 의리를 보여준 배설을 “한국인중”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작자는 배설을 달래기 위해 “공의부인”인 마리 모드와 “공의령운”인 허버트 오웬 친키(Herbert Owen Chinki Bethell)의 근황에 대해 말한다. 마리 모드는 배설의 사업을 계승하고³⁸⁾, 허버트는 8세 어린 아이지만 어른보다 낫다고 한다. 아울러 작자는 1908년 5월 27일부터 『대한매일신보』의 발행 겸 편집을 맡았던 만함(萬咸, Alfred Weekly Marnham)³⁹⁾이 배설의 뒤를 이어 대한매일신보사를 열심히 경영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작자는 배설에게 “공의홀일 다향”고,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으며, 만함이 대한매일신보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작자는 세월이 지나도 배설의 이름은 빛날 것이고 배설의 영혼은 대한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날에 독립을 즐기면 된다고 위로한다. 이것은 작자가 배설의 혼에게 이승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일, 이승에 남겨둔 가

37) 1909년 5월 7일자에 게시된 「비설공의 횡장」에는 배설의 성질에 대해 “공의 성질을 대강 의론홀진디 의협강의 네 글즈에 지나지 아니하니”(띄어쓰기: 인용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비설공의 횡장」,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9년 5월 7일). 여기에서 의협강의(義俠剛毅)는 의롭고 의지가 굳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4]의 “의리남즈”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38) 『統監府文書』 제4권, 「警秘」 제89호, 1909년 5월 7일, 경시총감 와카바야시 라이조(警視總監 若林賚藏) → 외무부장 나베시마 게이지로(外務部長 鍋島桂次郎), 「「베델」死亡後의 大韓每日申報 運營에 대한 情報 등 報告」.

39) 만함(萬咸, Alfred Weekly Marnham)은 대한매일신보사의 2대 사장이었다. 그런데 만함은 주한 영국총영사 헨리 보나르의 중재로 1910년 5월 21일에 대한매일신보의 판권을 일본 통감부에게 700파운드에 이양했다(김도형, 앞의 논문, 539쪽). 한편, 만함에 이어 이장훈(李章薰)이 대한매일신보사의 3대 사장이 되었다. 배설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사를 이끌었던 양기탁, 신채호(申采浩) 등은 신민회 간부이기도 했는데, 이들은 1910년 6월 13일에 대한매일신보사를 떠났다.

족 및 대한매일신보사에 대해 미련을 두지 말고, 양화도에서 평안하게 영면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13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1] 망자의 공적, [2] 망자의 부재 확인 및 망자에 대한 원망, [3] 망자의 공적 및 하나님에 대한 원망, [4] 망자의 한, [5] 망자의 한에 대한 위로—망자의 공적에 대한 칭송, 망자 가족의 근황, 망자의 업적 계승— 등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13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망자의 공적을 회고하다가 망자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망자를 원망하고 나아가 망자를 데려간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데 이르게 된다. 하지만 작자는 망자의 입장에서 망자의 한을 이해하고 위로한다. 이것은 작자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망자뿐만 아니라 생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임을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5. 「비설씨 상스에 통곡」(1909년 5월 14일)

다음은 1909년 5월 14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한국생의 「비설씨 상스에 통곡」 전문이다.

- [1] 어인일고 어인일고 이런일도 잇단말가
통곡홀일 만타지만 이우에서 더홀손가
- [2] 마굴중에 싸진인싱 아모도록 건지라고
즈기지산 잇는디로 신보샤를 창설호고
천만고의 뉘흔의리 공언직필 일을습아
우리한국 동포들의 지금까지 사는것도
공의덕턱 그아니며 공의스업 그아닌가
- [3] 익고익고 원통허라 진정슬허 못살갓네
우리한국 위허여셔 허다간고 격근일을
싱각스록 눈물이오 말허자니 기막히네
- [4] 삼천리의 동포들아 비설씨의 뉘흔은혜
일시인들 니즐손가 닛지안자 허량이면

우리강토 보전호고 우리민족 살어나서
하로밭비 문명호고 하로밭비 부강호여
홍호도적 물니침이 비설공 목덕이니
한국인중 보전차면 비설공을 닛지말고
비설공을 기념호며 어셔밭비 일들호소
[5] 비설씨의 령혼이여 이내소회 슣히소서
한국싱 통곡지비⁴⁰⁾

14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1]은 작품의 서두인데, 작자는 “이런 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은 채 “어인일고 어인일고 이런일도 잇단말가” 하면서 “이런일”에 대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일”은 작품의 제목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배설의 죽음이다. 작자는 통곡할 일 가운데 배설의 죽음이 그 정도가 심한 일이라고 말한다.

[2]는 배설이 “마굴”, 즉 일제의 압제 속에서 “우리한국 동포들”을 구하고자 자기 재산으로 대한매일신보사를 창설하고, 의리로써 옹고 그른 것에 대해 글로 써서 『대한매일신보』에 게시하여 여러 사람 앞에 알렸음을 말한다. 그리고 작자는 우리 민족이 배설의 항일 언론 활동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공의덕택”이라고 하며 동시에 이 일이 바로 “공의스업”이라고 언술한다.

하지만 [3]에서 작자는 “익고익고 원통히라 진정슬허 못살겟네”라고 배설의 죽음에 대한 원통함과 슬픔을 표현한다. 그 까닭은 배설이 대한제국을 위해 배일 논조를 전개하다가 재판이라는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자는 배설이 겪은 일을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말하자니 기가 막힌다고 한다.

하지만 작자는 [4]에서 “삼천리의 동포들”에게 배설이 겪은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에 대해 “비설씨의 늑흔은혜”라고 칭송한다. 그리고 작자는 배설의 은혜를 일시라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작자는 배설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리 강토를 보존하고

40) 「비설씨 상스에 통곡」, 『대한매일신보』 사즈, 1909년 5월 14일.

우리 민족이 살아나서 하루 바빠 문명하고 부강해짐으로써, “흥흥도적”, 즉 일제를 물리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실천 방안은 바로 배설의 항일 의지를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인중”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배설을 기념하며, 어서 바빠 일들, 즉 앞서 제시한 강토 보존, 문명 및 부강 등의 실천 방안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작자는 [5]에서 배설의 영혼을 불러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를 살필 것을 청한다. 여기에서 작자의 마음속 회포는 앞의 [4]에서 배설에게 다짐했던 우리 민족의 강토 보존, 문명, 부강으로 이해된다. 작자가 배설의 영혼에게 우리 민족의 강토 보존, 문명, 부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은 생자를 위한 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4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1] 생자의 슬픔, [2] 망자의 대한 칭송, [3] 생자의 슬픔, [4] 망자에 대한 애도 및 생자의 다짐, [5] 생자의 소망 등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14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망자에 대한 칭송과 애도, 생자의 슬픔, 다짐, 소망 등 추모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다양하게 엮볼 수 있다.

3.6. 「비설씨 상스에 통곡」(1909년 5월 30일)

1909년 5월 30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된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지금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배설 추모시와 달리 작자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작자명인 ‘리인환’은 이승훈(李昇薰, 1864년 3월 25일 ~ 1930년 5월 9일)의 본명이기도 하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이승훈은 안창호가 조직하고 대한매일신보사의 양기탁, 신채호 등이 간부로 있던 신민회와 관련 있는 인물이다. 이승훈은 1907년에 신민회에 가입하여 식산흥업 운동을 담당했는데, 그는 식산흥업 운동의 일환으로 1907년에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1908년에 평양 마산동에 자기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승훈은 1911년 일제가 신민회 조직을 탄압 및 해체하기 위해 조작한 105인 사건에 양기탁, 신채호와 더불어 연루되어, 옥고를 겪

고 1915년 2월에 가석방되기도 했다. 이처럼 신민회 회원이었던 이승훈은 대한매일신보사와 유관한 인물이다. 한편, 이승훈은 서북 지역의 대표 기독교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에서 제시한 30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30]에서 보이는 “하느님”, “성신”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이 글은 30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작자를 이승훈으로 간주하고, 다음에서 제시한 30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 원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서양세계 영웅으로 우리인민 구원코져
만경창과 일엽주에 즈션지심 그득짓고
동양으로 몸을주어 이천만민 눈씩엿네
비설씨의 칠년풍상 주야장턴 이췌건만
춤아엇지 몸이누어 흥번다시 못니넌가
- [2] 오호통지 비설씨여 이석홀바 그지업다
가지마오 가지마오 우리동포 구히주게
이고이고 비설씨여 영결종턴 흥단말가
- [3] 대한동포 제군들아 양화도에 홀노누은
의기남즈 비설공을 눈물뿌려 통곡호세
양화도의 파도성은 공의령혼 위로호고
만리장턴 찬바람은 공의밍렬 의기로다
억천만년 지나가도 공의빗난 그일흠을
대한데국 동포들이 일시라도 ◆줄손가
- [4]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의 비나이다
비설씨의 덕신으로 만함씨게 성신주샤
덕일신보 장훈뜻을 천츄만디 유전호야
대한인중 잠을씨워 독립기초 주읍소셔
- [5] 경고호세 경고호세 동포의게 경고호세
공의뜻을 어김업시 어셔빚비 독립호세
리인환 통곡지비⁴¹⁾

30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서두인 [1]은 배설의 행적을 언급한

41) 「비설씨 상스에 통곡」, 『대한매일신보』 사즈, 1909년 5월 30일.

다. “서양세계 영웅”으로 상징되는 배설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선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동양으로 왔다고 한다. 도입부의 이러한 표현은 배설의 실제적 삶에서 벗어난 진솔로, 이와 유사한 표현은 앞서 13일자 「빅설씨 상사에 통곡」에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작자는 배설이 동양에 왔을 때 우리 민족 이천만민이 배설의 눈에 띄었고, 배설은 우리 민족 이천만민을 구하기 위해 7년 동안 주야장천으로 애썼다고 칭송한다. 하지만 배설은 심화병으로 눕게 되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2]에서 작자는 배설의 죽음에 대해 “오호통직 빅설씨여 익석 흘바 그지업다” 하고 슬픔을 강렬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작자는 미처 “우리동포”를 구하지 못하고 절명한 망자를 향해 “가지마오 가지마오 우리동포 구해주게 익고익고 빅설씨여 영결종턴 흐단말가” 하고 곡소리를 내며 망자와 영원히 이별하는 생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극대화시킨다.

[3]에서 작자는 양화도에 잠든 배설을 “의기남즈”로 표상하고, “대한동포제군”에게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자고 한다. 이것은 작자가 영면한 배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안인 것이다. 또한 작자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양화도의 파도성”도 배설의 혼을 위로한다고 한다. 작자의 이러한 발화에는 양화도에 묻힌 배설의 주검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는 작자의 마음이 투사된 것이다. 한편, 작자는 “만리장턴 찬바름”은 배설이 생시에 보여줬던 맹렬한 의기와 같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소멸과 연결되는데, 작자는 배설의 절명으로 배설의 육신은 소멸했지만 배설의 의기만큼은 소멸하지 않고 “만리장턴 찬바름”으로 소생하기를 바란다. 작자의 이러한 언급에는 작자의 종교 생활과 관련된 기독교 부활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곧 “만리장턴 찬바름”은 작자가 망자 배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바람, 독자가 일제에 맞서던 배설의 의기를 기억하고 배설을 잃은 비극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작자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리장턴 찬바름”을 망자와 생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또한 배설의 육신은 실제 소멸했음

에도, 작자는 배설의 이름은 억 천만년이 지나가도 빛날 것이라고 칭송한다. 이를 위해 작자는 우리 민족이 배설의 이름을 잠시라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4]에서 작자는 하나님께서 배설에게 주었던 성신을 만함에게 줌으로써, 만함이 배설의 빈자리를 채우고 『대한매일신보』의 뜻을 오랫동안 보전하여 “대한인종”을 계몽하고 대한제국 독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 기도는 작자를 포함한 “대한인종”이 만함이 배설의 뒤를 이어 대한매일신보사를 순조롭게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대한인종”이 만함의 언론 활동을 통해 일제의 국권 침탈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간절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0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에 기도가 삽입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작자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사실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자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가 실용문의 성격을 띠는 추모시가에 자연스럽게 삽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0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의 외형은 전통가사의 형식에 가까운데, 가사의 개방적 속성에 의해 작자의 기도가 배설 추모시가에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5]에서 작자는 배설의 독립 의지를 실천하여 어서 바빠 일제로부터 독립할 것을 생자인 “동포”에게 경고한다. 이것은 우리 “동포”의 일원인 작자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30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1] 망자의 행적, [2] 생자의 슬픔, [3] 망자에 대한 위로 및 칭송, [4] 생자의 소망, [5] 생자의 다짐 등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30일자 「비설씨 상스에 통곡」은 망자의 공적, 망자에 대한 칭송과 애도, 생자의 슬픔, 다짐 등 추모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배설 추모시가의 의의

지금까지 이 글은 배설의 절명과 배설 추모시가의 현황,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배설 추모시가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배설 추모시가는 ‘죽음’이라는 인간 보편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망자와 생자가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가운데, 생자가 발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망자와 생자는 유명이 다르지만, 생자가 망자를 추모하는 행위 자체는 망자와의 소통을 의미한다. 생자인 작자들은 망자와 소통하기 위해 망자의 혼을 불러내어 망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 배설 추모시가의 작자가 망자에게 건네는 이야기는 1909년 5월 5일자부터 5월 10일자 『대한매일신보』 사고에서 제안한 “만장과 도문흐시는 글”이라는 취지에 맞게 망자를 “우리은인”(9일자), “대영국의 영웅”(12일자), “륙대주에 의리남즈”(13일자), “서양세계 영웅”(30일자), “의기남즈”(30일자)로 표상하여 망자의 공적을 칭송하고 망자의 권위를 높이고, 망자의 사인을 언급하여 망자의 한을 위로하고,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설 추모시가의 이러한 내용 구성은 생자인 작자가 망자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미덕, 개별 인간의 죽음을 숭고하게 여기는 겸허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자의 미덕과 겸허한 자세가 전제될 때, 추모시가는 이승의 존재인 작자가 망자에게 일방적으로 건네는 말에 머물지 않고, 망자와 생자 사이의 양방향 소통을 가능케 하는 담화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9일자 「비설씨 상수에 통곡」부터는 작품을 완결한 후에 ‘작자명 통곡직비’라고 표기했는데, ‘작자명’을 통해 망자와 소통을 시도했던 작자의 이름을 보여준다. 김지호, 마리연, 김, 영연싱, 한국싱, 리인환 등 배설 추모시가의 작자는 다층적 생자인 “대한반도 동포”(6일자), “우리한국 동포들”(14일자), “삼천리의 동포들”(14일자), “우리민족”(6일자,

14일자), “대한인종”(9일자, 12일자, 30일자), “한국인종”(13일자, 14일자), “삼천리의 이천만”(12일자) 등을 대표하여 망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데에 대한 비애를 망자에게 토로하고, 망자에게 자신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계몽, 자강, 독립에 대한 소망과 다짐을 발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처럼 망자가 부재하는 가운데도 생자가 자신의 소망과 다짐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는 생자인 작자가 저승으로 간 배설과의 소통의 끈을 붙들려는 의도로 이해되며, 망자와의 담화에서 담화의 주체로 거듭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배설 추모시가는 ‘신문’이라는 근대적 인쇄매체에 실려 대중 독자와 더불어 공적 인물인 배설을 추념하고, 계몽, 자강, 독립의 정론을 공유하고 있다. 대한제국에 신문이 창간되기 이전의 추모시가는 구전되거나 향찰, 국문, 한문 등 문자로 기록되어 『삼국유사(三國遺事)』, 『악학궤범(樂學軌範)』과 같은 문헌에 수록되어 전했다. 그런데 1896년에 『독립신문』이 창간되면서 이때부터 신문이 한국문학의 유통 구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문학적 분위기에서 추모시가에 해당하는 민영환(閔泳煥) 혈죽가사(血竹歌辭)는 1906년, 1907년에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자강회월보』 등에 발표되었고⁴²⁾, 민영환 혈죽가사의 뒤를 이어 배설 추모시가가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다. 배설 추모시가는 대한매일신보사의 기획 하에 지어졌고, 『대한매일신보』에 발표되어 국문을 아는 대중 독자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그리하여 배설 추모시가의 작자와 대한매일신보사는 국문을 아는 대중 독자와 더불어 배설을 잃은 같은 경험과 슬픔을 공유하고 이를 민족 공동체 안에서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또한 대한매일신보사는 당대의 시대적 과업이자 망자 배설의 뜻인 대한제국의 계몽, 자강, 독립에 대해 배설 추모시가의 작자, 대중 독자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 작자와 대중 독자 스스로 자아성찰 및 자기각성을 하여 계몽,

42) 1906년, 1907년에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자강회월보』 등에 발표된 민영환 혈죽가사에 관한 목록은 김신중, 「애국계몽기의 혈죽가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95집, 한국언어학회, 2015, 131쪽 표 참조.

자강, 독립의 주체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사가 신문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한매일신보사는 신문의 공공성에 기대어 배설의 죽음을 우리 민족이 계몽, 자강, 독립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적 사건으로 만들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사는 배설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시가를 대중 독자—배설 추모시가의 작가는 배설 추모시가를 창작하기 전에는 대중 독자로 존재했다.—에게 창작하게 함으로써, 대중 독자 스스로가 계몽, 자강, 독립의 정론을 형성하고 이를 생활상에서 실천하여 대한제국을 구하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셋째, 배설 추모시가는 고대가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에서 출발하는 한국 추모시가의 계보를 잇고 있다.⁴³⁾ 「공무도하가」는 백수광부의 처가 기어이 강에 들어가 목숨을 잃은 남편 백수광부를 추모하는 노래이다. 「공무도하가」는 ‘망자 : 생자 = 백수광부 : 백수광부 처’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강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이할고(公墮而死 當奈公何)”와 같이 백수광부와 백수광부 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백수광부가 강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 백수광부의 처는 가신 임의 죽음을 슬퍼하는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도하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추모시가에서 작자인 생자는 망자 생전에 망자와 맺었던 관계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 규정하고, 망자와의 영원한 이별에서 상실감, 슬픔을 노래한다.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죽음에 의한 이별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고 이별에서 기인한 슬픔은 인간 본연의 정서이므로, 추모시가는 시대를 초월하여 창작되고 향유되는 것이다. 아울러 생자는 추모시가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망자를 잃은 슬픔을 토로하고, 슬픔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위안

43) 이완형은 “「公無渡河歌」는 현전 문헌으로 나타나는 한국 최초의 죽음을 읊은 노래이고 죽은 자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輓歌와의 상관성이 주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완형, 「「公無渡河歌」와 「祭亡妹歌」의 輓歌的 性格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24집, 어문연구학회, 1993, 177쪽 발췌). 「공무도하가」의 만가적 성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완형, 위의 논문, 175~177쪽 참조.

을 받는 심리적 정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생자는 추모시가의 창작을 통해 위안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은 「공무도하가」 이후에 창작된 향가 「제망매가(祭亡妹歌)」, 「찬기과랑가(讚耆婆郎歌)」,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향가계 여요 「도이장가(悼二將歌)」, 고려가요 「동동(動動)」, 18세기 말에 규방에서 지어진 제문가사, 20세기 초 배설 추모시가보다 먼저 창작된 민영환 혈죽가사 등에서도 확인된다. 배설 추모시가는 한국 추모시가의 이러한 문학적 토양에서 창작,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배설 추모시가는 영국인 배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창작한 작품이다. 배설은 한일 병합 이전에 우리 민족의 계몽, 자강,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선 인물로서 『대한매일신보』의 발간, 편집을 통해 배일 논조를 전개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배설의 이러한 공적을 인정하고, 1968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배설에게 추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배설은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배설 추모시가에 대해 살펴본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 글은 배설이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배일 논조를 펼쳐 영일 양국의 공동 기소에 의해 1907년, 1908년에 재판에 회부되었고, 1908년 재판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심장확장으로 절명했음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이 글은 배설 추모시가 6편에 나타난 내용의 양상을 종합한 결과, 초혼, 망자의 행적, 망자에 대한 칭송과 애도, 망자의 사인, 망자의 한에 대한 위로, 망자의 절명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생자의 비애, 소망 및 다짐 등을 담고 있음을 고구했다. 끝으로, 이 글은 배설 추모시가가 ‘죽음’이라는 인간 보편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망자와 생자가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가운데, 생자가 계몽, 자강, 독립을 다짐하는 발화를 통해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신문’이라는 근대적 인쇄매체에 실려 대중 독자와 더불어 공적 인물인 배설을 추념하고 계몽, 자강, 독립의 정론을 공유하며, 고대가요 「공무도하가」에서 출발하는 한국 추모시가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살폈다.

배설은 생전에 우리말을 몰랐지만, 우리 선조들은 배설을 잃은 슬픔을 국문시가로 곡진하게 노래했다. 이처럼 배설과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서로 달라도 망자인 배설과 생자인 우리 선조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배설 추모시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문으로 지어진 배설 추모시가 외에 한시와 부 양식으로도 창작된 배설 만사 51편이 1909년 5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국한문관 『大韓每日申報』에 게시되어 있고, 2011년 12월 15일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482호로 지정된 『배설만사집』(소유자: 정진석, 소장처: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일보 신문박물관)에는 만사 259편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배설 추모시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한시와 부 양식으로 지어진 배설 만사를 고찰할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종시대사』 제6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大韓每日申報』(국한문판),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http://www.bigkinds.or.kr/>)
- 『대한매일신보』(국문판),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http://www.bigkinds.or.kr/>)
- 『統監府文書』 제2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統監府文書』 제4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統監府文書』 제6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統監府文書』 제9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 김도형,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유럽인 연구」, 『한국학논총』 제37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539쪽.
- 김동규, 「제문가사 연구-규방가사 장르에 있어서」, 『여성문제연구』 제8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9, 122쪽 및 148쪽.
- 김신중, 「애국계몽기의 혈죽가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9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5, 131쪽.
- 이성혜, 「祭文, 위로와 치유의 서사」, 『퇴계학논집』 제23집, 퇴계학연구원, 2014, 121쪽.
- 이영호, 「관습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조선후기 제문 양식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제2집, 한국작문학회, 2006, 205쪽.
- 이완형, 「「公無渡河歌」와 「祭亡妹歌」의 輓歌的 性格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24집, 어문연구학회, 1993, 175~177쪽.
- 정은경, 「大韓每日申報에 關한 考察-申報의 主體的 姿勢를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5.
- 정진석, 「대한매일신보의 제작진과 경영자금에 관하여」, 『신문연구』 겨울 통

- 권 제40호, 관훈클럽, 1985.
- 정진석, 「The Korean problem in Anglo-Japanese relations 1904-1910 Ernest Thomas Bethell and His Newspapers : the Daehan Maeil Sinbo and the Korea Daily News」,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London, 1987.
- 정진석, 「한국문제에 관한 영일간의 외교교섭, 1904~1910」, 『신문연구』 여름 통권 제43호, 관훈클럽, 1987.
- 정진석, 『대한매일신보와 배설-한국문제에 대한 英日외교』, 나남, 1987.
- 정진석, 「국채보상운동과 언론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 제8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3, 210쪽.
- 정진석,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동포를 구하라-대한매일신보 사장 배설의 열정적 생애』, 기파랑, 2013.
- 정진석, 『배설(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영국 언론인)』, 역사공간, 2013.
- 최덕수 외, 「원문편-조영수호통상조약(1883.11.26.)」,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 최윤희, 「《견문록》 소재 한글 제문의 글쓰기 방식과 갈래적 변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433쪽.
- 최재남, 『한국에도시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한국언론사연구회, 『대한매일신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Abstract>

The Elegy Poetry of Ernest Thomas Bethell in Daehan Maeil Sinbo

Kim, A-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legy Poetry of Ernest Thomas Bethell(Korean name: 배설(裵說)) in Daehan Maeil Sinbo. Bethell was born on November 3rd 1872 in Ashley Bristol, UK. He went to Kobe, Japan in 1886, and then he was engaged in foreign trade there. However, the Russo-Japanese war broke out in 1904, he came to Korea as a special correspondent of Daily Chronicle. But Since The Independent(founded in 1896) ceased publication in 1899, thus, English-Language newspaper is no longer being published in Korea. For this reason, he published Korea Daily News in English and Daehan Maeil Sinbo in Korea. That year Korea Daily News and Daehan Maeil Sinbo resisted against The Waste Land Concession Requested by Japanese Colonialism, this matter caused deep conflict between Bethell & Embassy of Japan in Korea. After that the overall tone of Korea Daily News-Daehan Maeil Sinbo were critical of the Japanese Colonialism. So He was a sticky issue for the UK and Japan, because the two countries were leagued together(The Anglo-Japanese alliance, in 1902 and 1905). Finally, in 1907 and 1908, the UK and Japan jointly charged him as a agitators who stir up divisions between Korean people and Japanese government are dangerous and took some of the articles in Korea Daily News-Daehan Maeil Sinbo as a evidence in court. After the 2nd round of trial(1908), he lay on a bed of illness in early March 1909, and died of a dilation of the heart on May 1st 1909. The next day, he was buried in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 The his funeral was attended by

a large gathering of Korean mourners.

Daehan Maeil Sinbo Company put advertisement in their newspaper from May 5 to 10, and encouraged newspaper subscribers to send elegy to remember UK journalist Bethell's death to their company. Thus, newspaper subscribers sent 6 Elegies written in Korean: 「익고익고」(May 6), 「비설씨 상소에 통곡」(May 9, 12, 13, 14, 30 for each poetry, but having the same title).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contents of 6 Elegy Poetries consisted mostly of Invocation of the spirits of the dead, the dead's specific achievements, praising and lamenting the dead, the cause of death, having resolved his deep sorrow, resentment over his death, the grief of survivors who had lost him, blessing wishes for survivors themselves and pledging to the deceased.

Based on that, this paper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e Elegy Poetry of Bethell. Firstly, the Elegy Poetry of Bethell takes the form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dead and survivors for the literary figuration of death and makes changing social attitudes and behaviors of survivors for enlightenment, self-cultivation and independence throughout survivors' speech acts. Secondly, the Elegy Poetry of Bethell was published in Daehan Maeil Sinbo, and shared the contemporary task such as enlightenment, self-cultivation, independence with subscribers. Thirdly, the Elegy Poetry of Bethell continues the tradition of Korean Elegy Poetry started from 「Gongmudohaga」.

Key words : Ernest Thomas Bethell, Daehan Maeil Sinbo, Korea Daily News,
Elegy Poetry

투고일 : 2016년 7월 15일, 심사 : 8월 8일 ~ 8월 18일, 게재확정 : 8월 22일